



호랑이 잠자던 거포 본능 깨어난다

KIA 타이거즈의 순위 싸움에 홈런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주말 이용규의 홈런에 이어 26일 나지완의 한방까지 이어지면서 호랑이 군단의 장타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용규·나지완 잇따라 홈런포, 김상현도 2군서 '황' ... KIA 순위싸움 청신호



홈런포가 KIA 순위 싸움을 좌우한다.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가장 큰 고민은 '한방'이다.

부상으로 잠시 쉬고 있는 넥센 강정호가 홈런 19개의 홈런을 때려냈지만 KIA는 26일 LG와의 경기에서 터진 나지완의 홈런을 포함해 팀홈런이 18개에 불과하다. 26일 현재 SK가 60개의 홈런포를 날리며 '장타군단'임을 과시한 것을 보면 초라한 성적표다. 여기에 팀홈런 7위인 두산이 30개라는 것을 감안해도 한참 부족한 파워이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홈런만큼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가 없지만 한방이 부족해서 KIA는 극적인 승부를 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에는 나지완이 18개의 홈런으로 팀내 1위, 이범호(17개), 김상현(14개), 최희섭·김주형(이상 9개)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올 시즌 이범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제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김상현은 개막전에서 입은 손바닥 골절 부상으로 오랜 시간 재활군에 머물러왔다. 5개의 홈런으로 올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날린 최희섭도 최근 체력저하로 페이스가 떨어졌다. 지난 가을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김주형도 계속된 부진으로 2군행이다. 나지완에 앞서 최근 KIA에서 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공교롭게도 이용규·김선민 테이볼 세터 두 명이다. 지난 17일 김선민이 LG 리즈를 상대로 투런포를 날리며 팀의 6-0 완승을 이끌었고, 이용규는 23일 선두 SK와의 경기에서 마수같이 홈런을 날리며 9-7 승리에 기여를 했다. 지난 5월1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터진 나지완의 홈런도 팀 3연승에 결정적 한방이 됐다. 4-2, 2점차의 불안한 리드가 이어지던 6회 나지완은 임찬규의 낮은 직구를 가볍게

잡아당겨 투런포를 만들면서 팀이 불펜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어렵게 터진 홈런들의 영향가는 만점이었다. 나지완의 한방이 터진 26일 김상현도 2군에서 타격감을 조절하고 있는 김상현은 세 경기 만에 홈런을 기록하면서 몸을 풀었다. 김상현까지 타선에 들어선다면 KIA의 파워싸움에도 힘이 붙게 된다. 여름에 강한 호랑이 군단이 살아나는 장타와 함께 순위싸움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새로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주영 + α' 홍명보호 와일드카드는 누구?

정성룡·이정수·곽태휘 거론 런던 올림픽에 출전할 축구 대표팀의 진용이 이번 주 중에 확정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올림픽 본선에 나갈 최종 엔트리 18명과 예비 선수 3명의 명단을 오는 29일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조지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취약점을 메워 전력을 배가

할 와일드카드의 규모와 주인공이다. 올림픽 본선에서는 연령 제한인 23세가 넘는 와일드카드를 3명까지 기용할 수 있다. 한 자리는 최전방 공격수이자 성인 대표팀 주장으로 활약한 박주영(27·아스널)이 이미 차지했다. 홍명보호 올림픽 대표팀 감독은 최근 병역 회피 의혹을 해명하는 박주영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자리에서 그를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은 두 장의 와일드카드가 모두 쓰일지는 미지수다. 골키퍼는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강렬한 아쉬움을 남긴 자리로 주목을 받았다. 홍명보호는 아랍에미리트와의 아시아권 예선 준결승전에서 골키퍼가 경험 부족을 노출하면서 0-1로 아깝게 지고 말았다. 아쉬움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국내 정상급 기량을 갖추고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뛸 경험이 있

는 정성룡의 처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감독은 예선부터 조지력을 함께 다져온 선수들이 와일드카드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와일드카드 사용이 2명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최근 수비진에서 부상자가 나왔다. 포백 수비라인을 지휘하는 중앙 수비수 홍정호(23·제주)가 왼쪽 무릎을 심하게 다쳐 출전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노련한 이정수(32·알 사드)나 체공력, 스피드, 공격력이 돋보이는 곽태휘(31·울산)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연필뉴스

“축구? 아내가 더 중요해”

유로 2012 화제 ... 이탈리아 프란델리 감독



유로 2012에서 이탈리아를 4강으로 이끈 프란델리 감독. 아래는 아내와 함께한 사진.



유로 2012에 출전한 감독 중 가장 화제를 모은 사람은 이탈리아 프란델리다. 그는 남아공월드컵 직후인 2010년 7월 국가대표 사령탑에 앉으면서 “전통적인 ‘카테나치오’(빗장 수비)를 버리고 공격축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시의 약속을 취임 후 첫 메이저 대회에서 어김없이 지키고 있다. 그는 2004~2010년 이탈리아 리그의 피오렌티나를 지휘했으며 2006년 세리에 A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2012유로에서 그가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파격적인 전술 변화 외에 드라마틱한 축구 역정이었다. 그는 현역 시절 유벤투스에서 미드필더로 리그 3연패(1981, 1982, 1984)를 이룬 뒤 1990년 아탈란타에서 은퇴했다. 비록 주전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벤투스에서 보낸 여섯 시즌 동안 1983 코파 이탈리아 우승과 1984 UEFA 컵 위너스컵 우승, 1985 유럽파인 챔피언스 클럽스 컵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청소년 대표팀 코치로서 지도자로 변신했으며 아탈란타에서 감독생활을 시작했다. 1999~2000 시즌 베로나와 2001~2002 시즌 베네치아를 1부 리그로 승격시킨 후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며 2004시즌 AS로마의 지휘봉을 잡았다. 하지만 부인 마누엘라 프란델리가 암에 걸리자 병 간호를 이유로 스스로 사퇴했다.

수비중심 이탈리아 축구 공격 축구로 바뀌 부인 암에 걸리자 감독직 사퇴하고 간호

프란델리 감독은 과거 대표팀을 이끌었던 토티·델 피에로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의 부재로 고민하다 그 자리에 모타 같은 침투가 좋고 압박도 잘하는 선수를 배치했다. 이 전술이 수비 라인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스페인 같은 팀을 상대로 볼 점유율에서 밀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다.

아내가 사망한 후 2005년에 피오렌티나로 옮겨 첫 해에 팀을 리그 4위로 이끌었지만 '이탈리아 스포츠 승부조작 재판'에서 공범죄로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이후 팀을 강등에서 탈출시켰으나 2007년 11월25일 레지나와의 원정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부인의 마지막을 지켜주기 위해서였다. 아내에 대한 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에 감동한 팬과 선수들은 이아르케미오 프랑키에서 열린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부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팬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꽃을 던져 주었고 시를 적은 플래카드 10여 개를 내걸었다. 왕립 선수를 모두는 검은 완장을 차고 경기를 했다. 축구는 경기 결과가 중요한 스포츠다. 하지만 AS감독직까지 내던지며 부인을 지켰던 프란델리 감독의 이야기는 축구가 팬들의 마음을 한데 묶는 감동의 드라마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유재관기자 jkyou@kwangju.co.kr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몰사건 건너편)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 www.geumsoojang.com